VOL.3

건강 + 행복

Health+Happiness | 2026.09. Autumn

가을호



창원시설공단
Changwon Infrastructure Corporation



VOL.3

건강 + 행복

Health+Happiness | 2026.09. Autumn

발행인 이경균
편집장 박정은
발행처 창원시설공단
기획 및 편집 디지털기획팀
발행일 2026년 9월

사보는 창원시설공단을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것입니다. 본지에 게재된 외부원고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창원시설공단의 공식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pecial Thema

04 **명시 산책**
코스모스

05 **공단 풍향계**
시민의 이동을 돕는 누비콜 운전원들의 하루

08 **계절 나그네**
천천히 걸으며 만나는 창원의 가을 풍경

공단, 공단人

10 **공단 포커스**
소통으로 다지고, 원칙으로 지키는 조직문화

11 **자랑스러운 공단**
자신의 자리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12 **공단 화제**
고객의 눈으로 본 현장, 서비스의 답을 찾다

14 **안전한 공단**
실전처럼 훈련하고, 더 안전하게 대비하다

15 **시설 & 이슈**
뜨거웠던 여름, 시민 곁에서 더위를 낮추다

소통 · 공감

16 **청소년마당**
작은 실천이 일상이 될 때
청소년 기후위기극복 에세이 공모전 수상작

18 **함께하는 공단**
수해 현장에 전한 따뜻한 손길

19 **문화 공감 – Book**
밝은 밤

건강 & NEWS 공유

20 **건강 플러스**
단풍만큼 중요한 가을 산행 안전수칙

21 **Food story**
가을 산행 전후, 무엇을 먹어야 할까?

22 **공단 뉴스라이프**

24 **따뜻한 공단**

26 **고객의 칭찬**

코스모스

노 자 영

몸맵시는 가냘파도 마음은 쇠줄같이 굳어

바람이 불때마다 하늘하늘 몹시 볶이다가도

아침에 흰 이슬 맺어 그 모양 연방홍(軟紡紅)으로 피다

더구나 달밤이면 흰토끼 자욱같이

어른어른 땅위에 그림자 홀로 덮이는데

그 옆에 벌레 소리만 그 꽃을 안고 이울어

노자영(1898~1940)

* 평양 숭실중학교 졸업, 양재학교 교편 생활
* 1919년 『매일신보』에 「월하의 몽」 등을 발표하며 작품 활동 시작
* 1921년 『장미촌』, 1922년 『백조』 창간 동인으로 활동
* 시집 〈처녀의 화환〉, 〈내 혼이 불탈 때〉, 〈백공작〉 등
* 소설집 〈무한애의 금상〉, 〈영원의 몽상〉, 수필집 〈인생안내〉 등 다수

오늘도 **당신의 길**을 함께 갑니다

시민의 이동을 돕는 누비콜 운전원들의 하루



이동은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작은 외출조차 큰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공단이 운영하는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누비콜'에는 시민의 일상적인 이동을 돕는 운전원들이 있습니다. 이용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승·하차를 돕고, 목적지까지 안전한 이동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새로운 목적지를 향하는 차 안에서는 짧은 인사가 오가고, 때로는 살아가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매일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길을 함께하는 누비콜 운전원들의 하루를 만나봤습니다.

누비콜 운전원의 하루

Q 지금 하고 계신 업무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장은주 : 누비콜을 운행하면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목적지까지 모시고 있습니다.

김은미 : 운전만 하는 것은 아니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이 안전하게 차량에 타고 내릴 수 있도록 돕고,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민규 : 저희는 4교대로 근무해요. 출근해서 첫 배차를 받으면 이용자분을 모시러 가고, 내려드린 뒤 다시 다음 배차를 받아 이동합니다. 그렇게 한 분 한 분 모시다 보면 하루가 지나갑니다.

Q 고객을 응대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장은주 : 아무래도 이용자분들이 목적지에 잘 도착하시고 "고맙다"고 말씀해주실 때죠.

김은미 : 오랫동안 일하다 보면 자주 만나는 분들도 생겨요. 늘 병원에 가시던 분이 한동안 안 보이면 '어디가 많이 안 좋으신가' 걱정도 되고요.

운전원과 승객을 넘어 서로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되는 거네요.

인터뷰 장면



김은미 : 맞아요. 다시 만나면 "왜 그동안 안 보이셨어요. 걱정했잖아요" 하고 이야기도 해요. 매일 사람을 만나는 일이다 보니 그런 관계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아요.

Q 이 일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하나만 꼽는다면요?

장은주 : 입사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병원에서 퇴원하는 노부부를 모신 적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입원해 계시다 퇴원하는 날이었는데 할머니가 많이 힘들어 보이셨어요. 그래서 가는 동안 자녀분들 이야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 40분 정도를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도착할 때쯤에는 좀 괜찮아지셨나요?

장은주 : 내리실 때 제 손을 잡으면서 처음 차에 탈 때는 마음이 너무 안 좋았는데 지금은 편안해졌다고 하셨어요.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내가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입니다.

Q 오랫동안 이용자분들을 만나면서 달라진 점도 있나요?

김은미 : 손님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 '이야기를 듣는 것도, 이야기하는 것도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하게 됐어요.
예전부터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하는 일이 장애인의 이동을 돕는 일이기도 해서 지금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상담 분야를 공부하고 있어요. 이제 한 학기가 남았어요.

이용자분들과의 만남이 공부로도 이어진 거네요.

김은미 : 네. 공부하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Q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어려운 순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장은주 : 대기시간이 길어지면 이미 답답함이 쌓인 상태에서 타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말이나 태도에서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그래도 저는 먼저 거리감을 없애려고 해요. "어머니 오셨어요?", "밥은 드셨어요?" 하면서 먼저 말을 걸어요. 웃는 얼굴로 인사하면 상대방도 조금씩 경계를 푸는 게 보여요. 그러면 결국 제가 받는 스트레스도 줄어들고요. 저는 운전하는 것도 좋고 손님들 만나는 것도 좋아요. 아직까지도 일이 재미있어요.

김민규 : 야간에는 술을 드시고 타시는 분들도 있고, 욕설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힘들죠.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장치나 지원도 있나요?

김은미 : 차량에 설치된 격벽이요. 실제로 무슨 일이 생기지 않더라도 격벽이 있다는 것 자체로 심리적인 안정감이 많이 생겼어요.

Q 마지막으로 누비콜 이용자와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장은주 : 이용자분들과 저희가 서로 편하게 인사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이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규 : 중앙역이나 병원 같은 곳에는 교통약자 승·하차구역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일반 차량이 그곳에서 주차하거나 기다리고 있으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은 안전하게 타고 내리기가 어려워요.

김은미 : 특히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무 곳에서나 쉽게 타고 내릴 수가 없어요. 교통약자 승·하차구역만큼은 비워두셨으면 좋겠어요.

"오래 만나다 보면 서로 '걱정했어요', '고마워요' 하는 사이가 돼요."
— 김은미 운전원



길 위에서 만나는 사람들

누비콜 운전원의 하루는 매번 다른 목적지를 향하지만, 그 길에는 이동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되고, 더 잘 듣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새로운 배움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쉽지 않은 순간도 있지만, 먼저 건네는 인사와 짧은 대화가 서로의 거리를 조금씩 좁힙니다. 오늘도 누비콜은 사람과 사람을 잇고, 누군가의 일상을 향해 달립니다.

천천히 걸으며 만나는 창원의 가을 풍경

3

공단 계절나그네 세 번째 여정



가을이 물드는 길

선선한 바람이 불고 나무들이 하나둘 가을빛으로 물드는 계절.
멀리 떠나지 않아도 창원에는 숲길과 바닷길,
가을의 맛과 풍경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천천히 걷고, 보고, 느끼며
가을을 만날 수 있는 창원의 나들이 명소를 소개한다.

투어관광지 소개

① 창원수목원

소재지 : 창원시 성산구 삼동동 산9-1
도심 가까이에서 다양한 식물과 정원을 만날 수 있는 녹색 휴식공간이다. 특색 있는 정원과 산책로를 천천히 거닐다 보면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자연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다.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여유로운 산책을 즐기기에 좋은 도심 속 나들이 장소다.

② 창원단감테마공원

소재지 : 창원시 의창구 동읍 동읍로359번길 27
창원의 대표 농산물인 단감을 주제로 조성된 공원으로, 가을이면 더욱 특별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단감과 농촌문화를 알아볼 수 있는 공간과 산책코스가 마련돼 있어 가족과 함께 둘러보기 좋다. 단감이 익어가는 풍경 속에서 창원만의 달콤한 가을을 만나볼 수 있다.

③ 진해드림파크

소재지 :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1137번길 97
푸른 숲속에서 산책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 공간이다. 숲길과 체험공간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좋다. 가을 햇살 아래 천천히 숲길을 걷다 보면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편안한 쉼을 만날 수 있다.

④ 저도 비치로드

소재지 :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 일원
푸른 바다를 곁에 두고 걸을 수 있는 해안 트레킹 코스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길을 따라 걸으며 탁 트인 해안 풍경과 시원한 바닷바람을 함께 즐길 수 있다. 무더위가 한풀 꺾인 가을, 천천히 걸으며 바다의 여유를 만끽하기 좋은 곳이다.

⑤ 천주산

소재지 : 창원시 의창구 북면 일원
창원의 가을 산행을 즐기기 좋은 대표적인 산이다. 숲길을 따라 천천히 오르다 보면 선선한 바람과 가을빛으로 물든 풍경을 만날 수 있으며, 정상에서는 탁 트인 전망도 즐길 수 있다. 걷기 좋은 계절, 가볍게 몸을 움직이며 가을 정취를 느끼기에 좋은 곳이다.

소통으로 다지고, **원칙**으로 지키는 **조직문화**



3/4분기 정례조회 개최…성과 공유부터 청렴·갑질예방 교육까지

우리 공단은 지난 7월 29일 창원축구센터에서 2026년 3/4분기 정례조회를 열고, 직원들과 함께 상반기 성과를 돌아보며 소통과 배움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례조회에는 현장 필수인력을 제외한 직원 223명이 참석했으며, 1부에서는 상반기 직무유공 직원 포상과 해외선진지견학 결과 발표, 이사장 직무대행 훈시가 이어졌다.

직원들의 노력과 성과를 함께 나누고, 해외 우수사례와 경험을 공유하며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살펴봤다.

2부에서는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청렴·갑질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등 주요 반부패 법령을 실제 업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사례와 함께 살펴보며 청렴과 상호 존중의 의미를 되새겼다.

교육 후 설문에서도 응답자 220명 가운데 98.2%가 주요 법령과 사례 이해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으며, 실제 업무 활용도 역시 98.2%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높은 공감을 얻었다.

예방 중심 내부통제로 자체감사활동 평가 A등급

조직 안에서 원칙을 지키고 스스로 점검하기 위한 노력은 외부 평가에서도 성과로 이어졌다.

우리 공단은 감사원이 실시한 '2026년도(2025년 실적)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A등급을 획득하며 전국 기초지방공기업 86개 기관 가운데 5위에 올랐다. 그동안 우리 공단은 위험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방 중심의 내부통제 체계를 꾸준히 강화해 왔다.

규정 제·개정과 부서별 자체점검을 비롯해 익명제보시스템 운영, 감사업무매뉴얼 구축, 감사 결과 사후관리 강화 등 조직 전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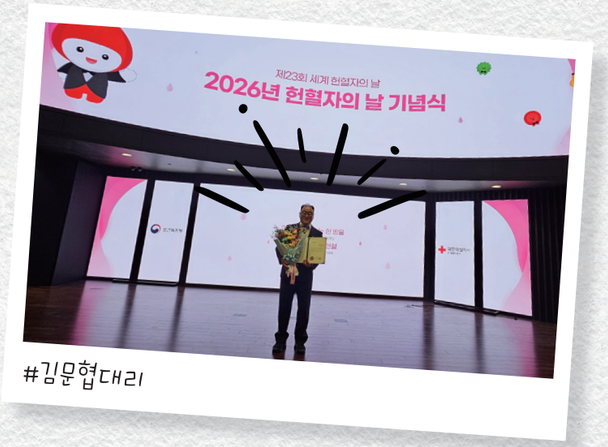
이번 성과는 특정 부서만의 결과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원칙을 지키고 업무를 점검해 온 직원들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자신의 자리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꾸준한 나눔과 헌신으로 따뜻한 변화를 이어가는 공단인들





우리 공단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이어온 나눔과 헌신을 인정받으며 뜻깊은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교통편의팀 김문협 대리는 꾸준한 헌혈과 생명나눔 실천으로 대한적십자사 회장상을, 김동규 계장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가보훈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김문협 대리는 '2026년 헌혈자의 날'을 맞아 열린 기념식에서 헌혈유공 개인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1990년부터 꾸준히 헌혈을 이어오며 생명나눔을 실천해 온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김문협 대리는 경남헌혈사랑봉사회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헌혈문화 확산에도 힘써왔으며, 지난 2020년에는 혈액암 환자를 위해 조혈모세포를 기증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왔다.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자격을 바탕으로 재능기부와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배려와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김동규 계장 역시 '2026년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보훈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사회 각 분야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온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서로 다른 분야에서 이뤄졌지만, 특별한 순간보다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책임을 다하고 작은 실천을 이어왔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한 사람의 꾸준한 헌혈과 봉사, 또 한 사람의 성실한 공직 수행과 사회적 책임이 쌓여 개인의 수상을 넘어 우리 공단의 따뜻한 조직문화를 보여주는 결실로 이어졌다.

이경균 이사장 직무대행은 "두 직원의 수상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며 나눔과 헌신을 이어온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선한 실천이 지역사회 곳곳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고객의 눈으로 본 현장, 서비스의 답을 찾다

ESG 모니터링단과 함께한 미스터리쇼퍼 점검… 시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 나서

우리 공단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현장 서비스를 점검하고 이용 과정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미스터리쇼퍼 서비스품질 점검'을 실시했다.

미스터리쇼퍼는 일반 고객처럼 사업장을 이용하며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서비스 수준을 살펴보는 방식이다.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4일까지 고객만족도 조사 미참여 15개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9개 사업장은 ESG 모니터링단 26명이 직접 방문해 시설환경·직원응대·고객편의·안전관리·현장운영 등 5개 분야를 점검했다.

나머지 6개 부서는 업무 특성을 반영한 자체 CS점검을 실시했다.

미스터리쇼퍼 점검 결과 9개 사업장의 종합평균은 92.7점으로, 직원의 친절한 응대와 상세한 안내 등 인적서비스 분야가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후 시설물과 안내체계, 주차·편의시설 등 고객 이용환경의 개선 필요사항도 확인됐다.

점검 결과는 실제 변화로 이어졌다.

샤워실과 노후 벤치 정비, 주차장 역주행 방지시설 개선, 홈페이지 정보 현행화 등 현장에서 발굴한 과제를 개선했으며, 장애인 고객과 운전원의 의견을 반영한 특화 CS교육도 추진하고 있다.

우리 공단은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현장의 의견과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사업장별 서비스 수준을 꾸준히 살피고, 우수사례는 함께 공유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을 높여갈 계획이다.

이용자의 눈으로 살펴본 진해국민체육센터



ESG 모니터 **황화선**

2026년 창원시설공단 마산회원체육센터 ESG모니터로 위촉된 나는 다른 모니터링단원과 함께 지난 5월 13일, 첫 모니터링을 위해 진해국민체육센터를 찾았다.

아파트 단지와 공원에 둘러싸인 진해국민체육센터는 2002년 월드컵이 열린 해에 준공됐다고 한다.

첫 모니터링이라는 생각에 어색함과 설렘을 안고 센터에 들어섰고, 이용객의 입장에서 시설 곳곳을 살펴보며 본격적으로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먼저 2층 헬스장으로 향했다. 유산소 운동기구가 배치된 공간은 쾌적했지만 규모가 다소 작아 보였다. 그런데 3층에 올라서자 또 다른 헬스장이 눈에 들어왔다.

"어? 헬스장이 또 있네?"

직원분의 설명을 들어보니 2층은 유산소, 3층은 무산소 운동기구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었다. 복도 공간에도 부피가 큰 운동기구와 사물함을 배치해 공간을 알차게 활용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벽면에는 비상연락처와 안전수칙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크게 안내돼 있었다. 3층 헬스장 옆 85m 트랙존에서는 아래층 다목적체육관이 훤히 내려다보였다. 체육관은 탁구대를 좌우로 배치하고 가운데 높은 네트를 설치해 이용자들이 서로 방해받지 않도록 했다. 트랙 가장자리에는 벽면 거울을 활용한 스트레칭 공간도 마련돼 있었다.

현재 수영을 즐기고 있는 나에게 가장 궁금했던 곳은 역시 수영장이었다.

지하 1층 수영장 탈의실 입구에는 이용수칙이 크게 안내돼 있었고, 샤워실 바닥에는 고속도로 주행유도선처럼 분홍색 선으로 '한 줄 서기' 표시가 돼 있었다. 혼잡한 시간대 이용객들의 동선을 정리하는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다. 수영장은 오랜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지만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수영강사실도 가까워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보였다. 각 층의 다목적실 역시 기구필라테스와 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활용되고 있었다.

진해국민체육센터를 둘러보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였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용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작은 불편을 개선해 온 흔적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첫 모니터링은 다른 시설의 좋은 점을 살펴보고 내가 이용하고 있는 체육센터에도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ESG모니터로서 이용자의 시선으로 시설을 꼼꼼히 살펴보고 싶다.



실전처럼 훈련하고, 더 안전하게 대비하다

사업장별 위험요인 반영한 현장훈련으로 재난 대응역량 강화

우리 공단은 각 사업장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반영한 실전형 훈련을 통해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 대응역량을 높이고 있다. 상복공원에서는 화장장 대기배출설비에 사용되는 암모니아 가스 누출 상황을 가정해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직원 17명이 참여해 상황 전파부터 이용객 대피, 환자 응급처치와 이송, 현장 통제 및 사고보고까지 단계별 대응절차를 실제 상황처럼 점검했다.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에서는 구암119안전센터, 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와 함께 수영장 익수 사고 대응 합동훈련을 진행했다. 공단 직원과 고객, 관계자 등 99명이 참여하거나 참관한 가운데 익수자 구조와 심폐소생술, 119 환자 인계 및 병원 후송까지 사고 발생 이후 전 과정을 실전처럼 진행하며 기관 간 공조체계를 확인했다.

창원축구센터에서는 주경기장 전기합선에 따른 조명타워 화재 상황을 가정했다. 직원 24명이 참여해 비상벨 작동과 이용객 구역별 대피, 전원 차단, 초기 화재진압, 부상자 응급조치 등을 실시했으며, 특히 밀집사고와 감전 등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대응절차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우리 공단은 상복공원과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창원축구센터에 이어 의창스포츠센터, 창원실내수영장, 진해해양공원에서도 사업장별 위험요인을 반영한 실전형 모의훈련을 이어간다. 앞으로도 반복적인 훈련과 점검을 통해 실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역량을 다지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빈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상복공원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뜨거웠던 여름, 시민 곁에서 더위를 낮추다

폭염 예방부터 도심 속 피서까지… 시설 곳곳에서 펼친 여름나기

폭염에 아이스링크로 몰린 창원시민들

최은주 기자 | 입력 2026.08.03 | 수정 2026.08.04 | 댓글 0

7월 이용객, 한 달 새 두 배 증가
더위도 피하고, 새로운 취미도 찾고



창원 의창스포츠센터 빙상장에서 시민들이 스케이트를 타고 있다. /최은주 기자



유난히 무더웠던 올여름, 우리 공단은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고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사업장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했다. 야외에서는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활동을 이어가고, 실내에서는 더위를 피해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며 시민들의 여름 일상에 작은 도움을 보탰다.

무더위에 그대로 노출되기 쉬운 파크골프장에서는 폭염 피해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난 7월 31일 부산지방기상청과 함께 대산면 파크골프장을 찾아 이용객 500여 명에게 얼린 생수와 부채형 안내문을 전달하고, 폭염특보 단계별 행동요령과 온열질환 응급처치법 등을 안내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야외활동을 즐기는 시민들이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직접 전했다. 반대로 빙상장은 한여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색다른 공간으로 변신했다. 성산스포츠센터는 7월 25일 빙상장 관람석에서 '아이스 시네마'를 열어 시민 150명에게 시원한 영화 관람의 시간을 선물했다. 빙상장 전광판과 음향시설을 활용해 가족들이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면서 체육시설의 또 다른 활용 가능성도 보여줬다.

의창스포츠센터 빙상장 역시 연일 이어진 폭염 속에서 '도심 속 무더위 쉼터'로 주목받았다.

시민들은 시원한 실내에서 스케이팅을 즐기거나 잠시 쉬며 더위를 식혔고, 이러한 모습은 연합뉴스와 경남도민일보의 현장 취재로도 이어졌다. 폭염을 피해 가까운 곳에서 건강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빙상장이 새롭게 조명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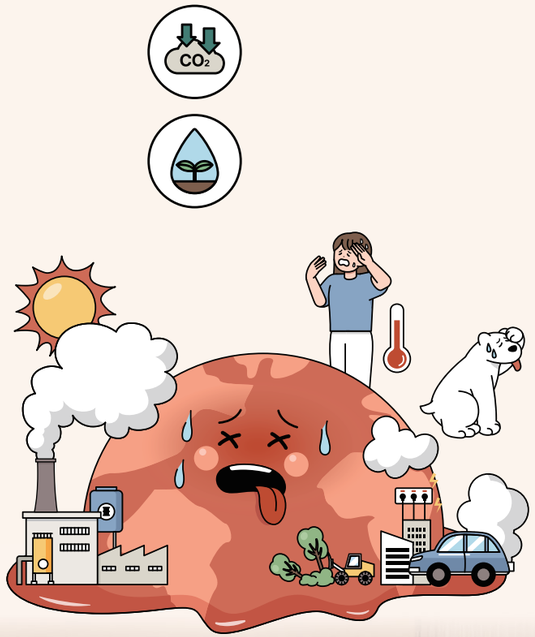
야외에서는 더위로부터 안전을 지키고, 실내에서는 더위를 피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던 여름. 우리 공단은 앞으로도 무더위처럼 계절마다 달라지는 시민들의 불편과 위험을 먼저 살피고, 각 시설이 가진 역할과 장점을 살려 시민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이어갈 계획이다.

작은 실천이 일상이 될 때

기후위기는 거창한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변화의 시작은 의외로 우리 일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페트병 하나를 제대로 분리배출하고, 텀블러를 사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보는 작은 행동도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에서 ESD봉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마산여자중학교 2학년 김수현 학생도 일상 속 환경실천을 통해 기후위기를 바라보는 생각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솔직하게 담아낸 에세이가 최근 공모전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작은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주변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청소년의 시선으로 바라본 환경과 실천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제1회 청소년 기후위기극복 에세이 공모전 수상작

이상한 여름날, 함께 시작한 작은 실천

마산여자중학교 2학년 **김수현**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ESD봉사단)

중학교 2학년에 만난 여름은 유독 덥게 시작한 것 같고 지금도 그 더위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내가 2학년에 봄을 만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전에는 여름이면 친구들과 밖에서 뛰어노는 것이 당연했는데, 이제는 폭염 때문에 운동장이 아닌 교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계절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낀다. 예전보다 훨씬 일찍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고, 갑자기 비가 퍼붓는 날도 자주 생겼다.

창밖 날씨가 한눈에 보일 정도로 극단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분명 어제는 햇빛이 쨍쨍해서 더운 날이었는데, 오늘은 비가 내려 춥고 습한 날이 되곤 했다. 처음에는 그냥 날씨가 이상하다고만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지구가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술·가정 시간에 비닐과 미세플라스틱 때문에 바다거북이 고통받는 영상을 본 적이 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바다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기후위기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과도 연결된 문제였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거창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큰 정책을 만들 수는 없지만, 내 일상에서부터 깨끗한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해보기로 했다. 그러던 중 동네에 설치된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인 '수퍼빈'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신기한 기계라고만 생각했는데, 재활용도 재미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그동안 분리배출은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수퍼빈을 알게 된 후 나의 행동은 조금씩 달라졌다. 음료를 마신 뒤에는 페트병에 붙은 비닐 라벨을 깨끗하게 떼어내고, 뚜껑까지 분리해 모아 두었다가 수퍼빈으로 향했다. 기계 입구에 라벨을 뗀 투명 페트병을 넣으면 '위잉' 하는 소리와 함께 페트병을 인식하고 포인트가 적립되는데, 그 과정이 마치 환경 게임을 하는 것 같아 재미있고 뿌듯했다. 예전에는 귀찮다고 생각했던 분리배출이 이제는 스스로 먼저 하게 되는 습관이 되었다.

수퍼빈을 통한 나의 작은 재미는 가족들에게도 좋은 변화를 가져왔다. 내가 페트병을 깨끗하게 씻고 라벨을 떼어 모으는 모습을 본 가족들도 함께 분리배출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분리배출뿐만 아니라 일회용 컵 대신 개인 텀블러를 챙겨 다니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는 변화까지 이어졌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구를 지키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더욱 뿌듯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완벽하게 잘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작은 실천을 이어가는 것이 지구를 지키는 데 훨씬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후위기는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실천은 누구나 혼자 시작할 수 있다.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또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꾸고, 그 변화가 모여 우리의 미래를 지켜낼 것이라고 믿는다. 지구의 내일은 오늘 우리가 만드는 작은 일상들이 모여 완성된다.

내가 오늘 라벨을 떼어 수퍼빈에 넣은 페트병 하나, 텀블러를 사용한 하루, 가까운 거리를 걸어간 한 걸음이 내일의 깨끗한 바다를 만들고 푸른숲을 지키며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는 시작이 될 것이라 믿는다.

나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모두가 함께 지구를 지키는 힘이 되기를 바란다.

수해 현장에 전한 따뜻한 손길

거제 수해복구 봉사·임직원 성금 기탁으로 일상회복 지원





우리 공단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거제 지역을 찾아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태고, 임직원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도 함께 전달했다. 이번 활동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피해복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 함께한 복구의 손길

지난 9월 3일 공단 직원과 기술직 직원으로 구성된 엔지니어청솔봉사대 등 총 13명은 피해지역을 직접 찾아 복구 작업에 참여했다.

직원들은 집중호우로 쌓인 잔해를 정리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등 복구가 필요한 현장 곳곳에서 일손을 보탰다. 특히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현장 상황에 맞춰 필요한 작업을 함께하며 복구 지원에 힘을 더했다.

창원시설공단 임직원, 자발적 참여로 따뜻한 마음 모아

현장 봉사와 함께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성금 모금도 이어졌다. 지난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총 460명의 직원이 뜻을 모아 597만5천 원의 성금을 마련했으며, 해당 성금은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의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공단은 앞으로도 재난·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과 이웃을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실질적인 힘을 보태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경균 이사장 직무대행은 “갑작스러운 폭우로 삶의 터전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힘을 보태는 공기업의 역할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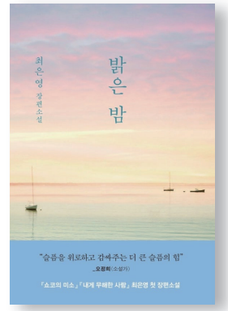


한 사람의 오늘 뒤에는 긴 시간이 있다



최은영 작가의 《밝은 밤》을 읽고

모수은(성산스포츠센터팀)



『밝은 밤』을 읽으면서 작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도 그 시대의 역사와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거대한 사건 자체보다 그 시간을 실제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의 일상과 감정에 집중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우리는 역사를 배울 때 중요한 사건과 연도, 인물을 중심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밝은 밤』에서 역사는 누군가에게 가족을 잃은 일이었고, 가난과 차별을 견디며 하루를 살아가는 현실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읽으며 진짜 역사는 그 시대를 살아간 평범한 사람들의 기억까지 포함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특히 증조모 ‘삼천’의 삶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다. 그는 ‘백정의 딸’이라는 사회적 낙인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든 그것이 자신의 전부라고 여기지 않았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나 타인의 시선만으로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의 현재 모습이나 직업, 가족관계만 보고 그 사람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한 사람의 현재 뒤에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경험과 선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기보다 그 사람이 지나온 시간을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역시 인상 깊었다. 지연이 가족의 과거를 알아가면서 어머니를 조금씩 다르게 바라보게 되는 과정은 나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우리 엄마 역시 누군가의 딸이었고, 자신만의 어린 시절과 상처를 지닌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됐다. 또한 힘든 시간을 함께 지나온 사람들의 우정은 사람이 혼자 모든 어려움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해주는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줬다.

『밝은 밤』을 읽고 난 뒤 나는 가족과 친구들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한 사람의 현재만 보고 그 사람을 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 사람이 지나온 시간을 이해하려 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을 더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배웠다.

단풍만큼 중요한 가을 산행 안전수칙

선선한 바람과 형형색색의 단풍이 어우러지는 가을은 산을 찾기 좋은 계절이다. 하지만 일교차가 크고 해가 빨리 지는 데다 낙엽으로 등산로가 미끄러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즐겁고 안전한 가을 산행을 위해 출발 전부터 꼭 알아두어야 할 안전수칙을 살펴보자.



가을 산행은 날씨와 산행 환경이 빠르게 변할 수 있어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자신의 체력에 맞지 않는 무리한 산행이나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산행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고 원인

1. 낙엽이나 젖은 등산로에서의 미끄러짐
2. 자신의 체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산행
3. 일몰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늦은 산행
4.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대한 준비 부족
5. 지정된 등산로 이탈
6. 비상식량·물·안전장비 미준비

안전한 가을 산행을 위한 실천 방법

1. **출발 전 날씨와 산행코스 확인하기** – 산행 전 기상정보와 등산로 상태, 소요시간 등을 미리 확인하고 자신의 체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해야 한다.
2. **충분한 준비운동 하기** – 산행 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충분히 풀어주면 근육과 관절 부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미끄럼에 주의하며 천천히 걷기** – 가을철 낙엽 아래에는 돌이나 나뭇가지, 젖은 지면이 숨어 있을 수 있다. 특히 내리막길에서는 보폭을 줄이고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다.
4.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 준비하기** – 가을 산은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다. 얇은 옷을 여러 겹 준비하고 바람막이 등 보온용품을 챙겨 체온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5. **해가 지기 전에 하산하기** – 가을에는 일몰시간이 빠르게 당겨진다. 산행시간을 넉넉하게 계획하고 늦어도 해가 지기 전에는 안전한 장소로 내려오는 것이 중요하다.
6. **위급상황에서는 위치를 알리고 구조 요청하기** – 길을 잃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는 무리하게 이동하지 말고 119에 신고해 현재 위치와 주변 지형지물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안전하게 걸어야 가을도 더 아름답습니다

가을 산의 아름다운 풍경도 안전이 함께할 때 온전히 즐길 수 있다. 작은 준비와 여유 있는 산행 습관이 나와 동행자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올가을에는 단풍을 향해 서두르기보다 안전을 먼저 챙기는 산행 습관으로 건강하고 즐거운 가을을 만들어보자.

든든하게 채우고 가볍게 즐기는 가을 먹거리 이야기

든든하게 채우고 가볍게 즐기는 가을 먹거리 이야기



선선한 바람과 단풍을 따라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가을. 산행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전후로 적절한 음식 섭취가 중요하다. 건강한 가을 산행을 위해 챙기면 좋은 먹거리를 알아보자.

산행 전에는 든든하게 에너지 채우기

산행 전에는 속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고구마나 감자, 통곡물빵은 간편하게 먹기 좋고, 바나나와 사과 같은 과일도 가볍게 챙기기 좋다. 다만 과식은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행 중에는 물과 간단한 간식 챙기기

가을에는 날씨가 선선해 갈증을 덜 느낄 수 있지만, 산행 중에도 꾸준한 수분 보충이 필요하다. 물은 조금씩 자주 마시고, 장시간 산행을 한다면 견과류나 말린 과일, 에너지바처럼 휴대하기 쉬운 간식으로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해보자.

산행 후에는 단백질과 제철 음식으로 회복

산행 후에는 소모된 체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챙기는 것이 좋다. 두부와 달걀, 생선 등 단백질 식품에 사과, 배, 단감 같은 가을 제철 과일을 곁들이면 균형 잡힌 식사에 도움이 된다.

과식과 음주는 주의하세요

산행 후 허기가 진다고 한꺼번에 많은 음식을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음주는 피로한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먼저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천천히 식사하는 것이 좋다.

잘 먹어야 가을도 더 즐겁습니다

가을 산행의 즐거움은 아름다운 풍경뿐 아니라 건강한 몸에서 시작된다. 출발 전에는 필요한 에너지를 채우고, 산행 중에는 수분과 간식을 챙기며, 돌아온 뒤에는 균형 잡힌 식사로 몸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
올가을에는 제철 먹거리와 건강한 식습관으로 몸도 마음도 든든한 가을을 보내보자.

NEWS LIFE

01



진해해양공원, 범죄예방 우수시설 재인증

진해해양공원이 경찰청 주관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제' 재인증을 획득했다. 2020년 최초 인증 이후 3회 연속 인증을 이어가며 안전한 시설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02



AI 안전관리 우수기관 선정…'AI 안전인증' 획득

우리 공단은 AI 안전 시스템 고도화와 디지털 시설운영 등 안전사고 예방 성과를 인정받아 (사)도시재생안전협회로부터 'AI 안전인증'을 획득했다. 앞으로도 AI 기반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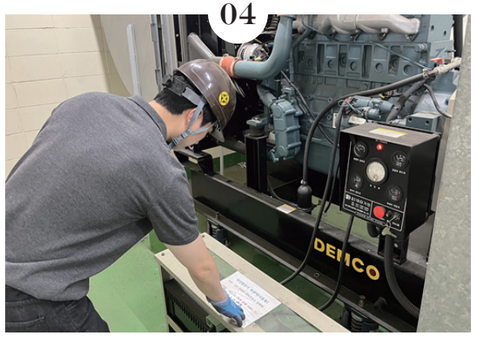
03



창원시설공단, 6년 연속 인권경영시스템 재인증

우리 공단은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인권경영시스템 재인증을 획득하며 2021년 이후 6년 연속 인증을 이어갔다. 현장 중심 소통과 인권존중 조직문화 정착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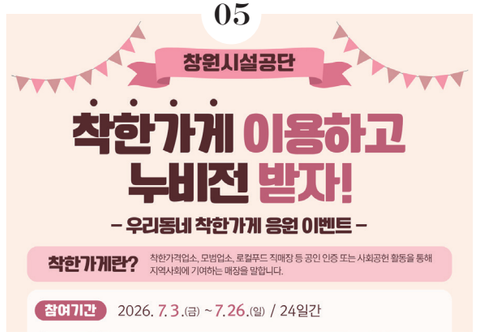


창원시설공단, 여름철 폭염·침수 대비 선제 안전점검 실시

우리 공단은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26개 사업장의 배수시설과 냉방·전기·소방설비 등을 집중 점검했다. 계절별 위험요인을 사전에 살피며 시민과 직원 모두가 안전한 시설환경 조성에 힘썼다.

NEWS LIFE

05



시민과 함께한 착한소비, 지역상생으로 이어지다

'우리동네 착한가게 응원 이벤트'를 통해 누비전을 활용한 착한가격업소·모범음식점 등 지역 내 인증매장 이용을 장려하며 시민과 함께 착한소비와 지역상생의 가치를 나눴다.

06



창원스포츠파크, 대테러 대비 합동훈련 실시

창원스포츠파크에서 을지훈련과 연계한 대테러 대비 합동훈련이 진행됐다. 11개 기관·단체 100여 명이 참여해 상황전파와 초기대응, 인명구조, 화재진압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07



감계복지센터, 이용객 간담회·안전교육 실시

감계복지센터는 이용객과 직원 등 113명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와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시설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북면119안전센터와 연계해 응급상황 대응 역량을 높였다.

08



영화로 배우는 인권교육 실시

우리 공단은 직원들의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창원여성인권영화제 상영작 「사랑과 고기」를 관람했다. 영화 관람과 부스 참여를 통해 일상 속 인권의 의미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공헌활동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함께하는 나눔, 공단의 약속

창원시설공단은 소외계층의 따뜻한 이웃이 되기 위해 농촌 일손 돕기, 생명 나눔 헌혈, 사랑의 김장, 아동센터 후원, 엔지니어청솔봉사대 활동 등 마음을 담은 사회공헌을 펼치며 모두가 행복한 창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노조·이해련 의장, 따뜻한 나눔 실천

창원시설공단노동조합은 이해련 창원특례시의회 의장과 함께 진해재활원을 찾아 중증 지적장애인을 위한 생활가전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동마산전통시장 업무협약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는 동마산전통시장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다양한 상생 활동을 함께 이어가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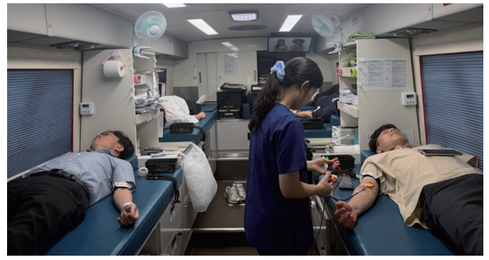
엔지니어청솔봉사대 사랑의 선풍기 기탁

엔지니어청솔봉사대는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 이웃들을 위해 선풍기를 기탁하며 시원한 바람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창원시설공단, 직원들과 함께 생명나눔의 가치를 잇다

우리 공단은 직원 49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헌혈의 날' 행사를 열어 생명나눔에 동참했다. 매년 헌혈을 이어가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의 가치를 전하고 있다.



용원국민체육센터 누리봄다문화지역악동센터 업무협약

용원국민체육센터는 누리봄다문화지역아동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함께하기로 했다.



늘푸른전당, 청소년 관광·문화 활동 지원 확대

늘푸른전당은 경남관광재단과 손잡고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관광·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더 넓은 경험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내서스포츠센터,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체험 선물

내서스포츠센터는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20명을 초청해 체육활동과 건강·안전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공단 시설을 활용해 아이들의 즐거운 경험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했다.



마산합포스포츠센터 그림전시·체험교실로 아동권리 존중 문화 확산

마산합포스포츠센터는 아동권리증진 그림 전시와 지역아동센터 초청 체험교실을 운영하며, 아이들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다.



시민분들의 따뜻한 칭찬 한 마디가 직원들의 노력을 북돋우고, **창원시설공단**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진해국민체육센터 최우애선생님
삶이 즐거워졌어요 감사합니다

최우애 강사님을 칭찬합니다. 트로트&이지댄스 수업을 들으면서 매번 느끼지만 정말 즐겁고 에너지가 넘치는 수업입니다. 회원 한 명 한 명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누구나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재미있게 알려주셔서 운동하러 왔다가 웃음까지 가득 안고 갑니다.
특히 강사님의 파워풀한 에너지와 유쾌한 진행 덕분에 수업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여러 댄스 수업을 경험해 봤지만 이렇게 기다려지고 즐거운 수업은 오랜만입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어요. 최우애 강사님, 정말 최고입니다!
좋은 회원들과 지금처럼 즐겁고 행복하게 수업해 주세요!
진해국민센터 감사합니다.

조미경

감계복지센터 10시 연수반 정혁진 강사님 감사합니다!

연수반까지만 있는 감계복지센터! 어느덧 연수반 운동량에 적응이 되서 운동이 재미없어지려던 찰나 우리센터로 오신 혁진선생님! 이것이 자유형이다!!!
첫달부터 알려주시고 연수반에 맞게 운동량도 잡아주시고 하루하루 수영의 참맛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엔 따라가기 바빴는데 요일별로 다른 드릴에 여러가지 턴도 가르쳐주시고 재밌습니다.
수영을 마치고 나면 오늘 하루도 운동 시켜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영법도 체력도 점점 늘고 있어서 혁진선생님이 다른 반으로 가시는 달이 다가오는 것이 벌써 아쉬울 정도입니다.
10시 연수반에 있는 동안 더 재밌게 가르쳐 주십시오!

김지혜

Good

내서스포츠센터 안전요원분들 칭찬합니다

내서 스포츠센터 수영장 안전요원 선생님들 칭찬합니다~
창원 살면서 여기저기 스포츠센터 가봤는데 내서센터의 안전요원분들이 가장 친절하고, 회원들에게도 관심많이갖고 지켜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1년 넘게 아쿠아 수업을 듣고 있는데 갈때 익숙한 얼굴이면 인사도 먼저 해주시고 몸이 불편해보이는 분들이 계시면 먼저 도와주십니다. 최근에 회원분이 물이 아닌 음료를 가지고 오신적이 있었어요.
다른 센터에서 같은 일이 있었을때 회원과 안전요원분 사이에 언성이 올라갔던 적이 있었는데 내서에서는 같은 지적을 하시는데도 표정과 말투가 다른것을 느꼈습니다.
수업시간 내내 일에 집중하지 않는 분 없이 회원들 지켜보고 계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어느샌가 가까이 와 계십니다. 수업 후에 수영장 정리도 웃는 얼굴로 함께 해주셔서 편안히 운동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보경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수영장 직원분들의 친절에
따뜻한 추억을 안고 갑니다!

안녕하세요. 기존에 다니던 수영장이 공사에 들어가는 바람에, 우리누리 수영장으로 원정 수영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곳이라 주차장 이용이 낯설어 살짝 당황했었는데, 무더운 날씨에도 주차장에 계신 직원분께서 직접 왔다 갔다 하시며 친절하게 주차 자리를 지정해 안내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헤매지 않고 기분 좋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수영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는 탈의실에 수영복, 수모, 수경 3종 세트를 두고 온 것을 알게 되었고 차로 왕복 1시간 거리라 당장 다시 방문하기 힘든 상황이라 급하게 탈의실로 유선 문의를 드렸습니다. 일 하시느라 바쁘실터인데 직원분께서는 친절하고 기꺼이 분실물을 신속하게 찾아 안내실에 맡겨 주셨고, 덕분에 소중한 수영용품을 무사히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물건을 잘 챙기겠습니다^^
오늘 방문부터 귀가까지 만난 모든 센터 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하셔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원정 수영이 훨씬 즐겁고 감사한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무더위 속에서도 이용객들을 위해 배려와 친절을 베풀어 주신 우리누리 수영장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영아

상복공원 마산영생원 상담 직원분을 칭찬합니다.

저는 작년에 사랑하는 남편을 먼 곳으로 여행 보낸 아내입니다. 당시 상복공원 봉안당으로 모시고자 하였으나 신축 공사 중으로 창원공원묘원 영생원에 임시로 안치 하였습니다.
올해 제3봉안당이 완공되어 남편을 상복공원으로 모시고자 여러 차례 궁금한 사항들을 전화로 상담하였습니다. 여러 사람을 응대하면 좀 귀찮을 법도 한데 상담 직원분은 성심 성의껏 제가 생각지 못한 세심한 부분까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습니다.
유선상이였지만 그 맘이 너무도 고맙고 감격스러워 많이 분들께 알려 드리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 뿐 아니라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감정이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쉬운건 제가 그분의 성함을 여쭤보지 못한 점이 죄송하네요. 남자분이셨구요. 매번 전화할 때마다 그 분이 받으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 슬픔에 잠겨 있을 모든 가족 분들께 힘내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김민정

마산합포스포츠센터 임직원 여러분의 친절과
세심한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장미희

지난달 어머니를 뵈러 마산에 갔다가, 동생이 어머니 모시고 수영장에 운동하러 간다고 하여 같이 갔습니다. 어머니가 연세가 있어 물속에서의 걷기 운동은 매우 좋지만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합포수영장에는 가족실이 있어 수영장 들어가기 전이나 수영 후에도 안전하게 샤워하고 어머니와 함께 수영장에서 운동할 수 있었습니다. 또 수영장 안전 요원님들과 관리하시는 분들께서 안전하게 살펴주시고 친절하게 안내도 잘해 주시어 처음 방문하는 저로서 참 기분이 좋고 신뢰가 갔습니다. 수영장 속에서도 주변 분들이 밝게 인사해 주시고 하여 어머니께서도 열심히 운동하니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고 수영장에 간다고 할 때 걱정을 많이 해 반대도 했었는데, 직접 경험해 보니 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고 수영장에 갈 수 있게 돕는, 물적 인적 환경이 잘 갖추어 있어 감사합니다.
수영장 근무자님들 덕분에 어머니께서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으니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고 좋은 시간들 되세요.

2026.09. Autumn

건강 + 행복

시민중심 공기업 창원시설공단

창원시설공단
Changwon Infrastructure Corporation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소비자원

창원시설공단 유튜브

(51411)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450번지 tel. (055)712-0114
www.cwsisul.or.kr